

삶의 힘을 키우는

따뜻한

경북교육



06 칼럼 따뜻한 경북교육에 바란다

07 특집 선생님을 아이들 곁으로

vol. 97

2018. 11

인사드립니다.

존경하는 30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3만 교육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이 가득한 가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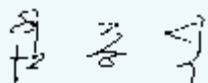
100년을 내다보는 눈으로
경북 곳곳을 다니며 도민은 물론 교육가족과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며 바쁘게 보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교실에서 신나고 즐거워야 합니다.
학교 구성원들은 서로 소통해야 합니다.
경북교육의 미래를 함께 열어가야 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 경북 교육공동체가 함께 가야 합니다.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사랑과 존경이 넘치는 따뜻한 학교,
모두가 행복한 교육은 300만 도민이 함께 할 때 가능합니다.
함께하는 교육공동체에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사랑과 관심,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18년 11월

경상북도교육감 



발행일 2018년 11월
발행처 경상북도교육청
발행인 임종식 경상북도교육감
총괄 최상수(공보관), 김현광(홍보담당 장학관)
기획 강호림(공보관 장학사)

편집위원
이해숙(상모유치원 교사), 이성은(동명초 교사)
김현욱(홍해남산초 교사), 정재천(옥계중 교사)
오수엽(안동고 교사), 최현기(형곡초 교사)
홍경애(영일도서관 사서), 정선용(공보관 주무관)



상모유치원



울릉초등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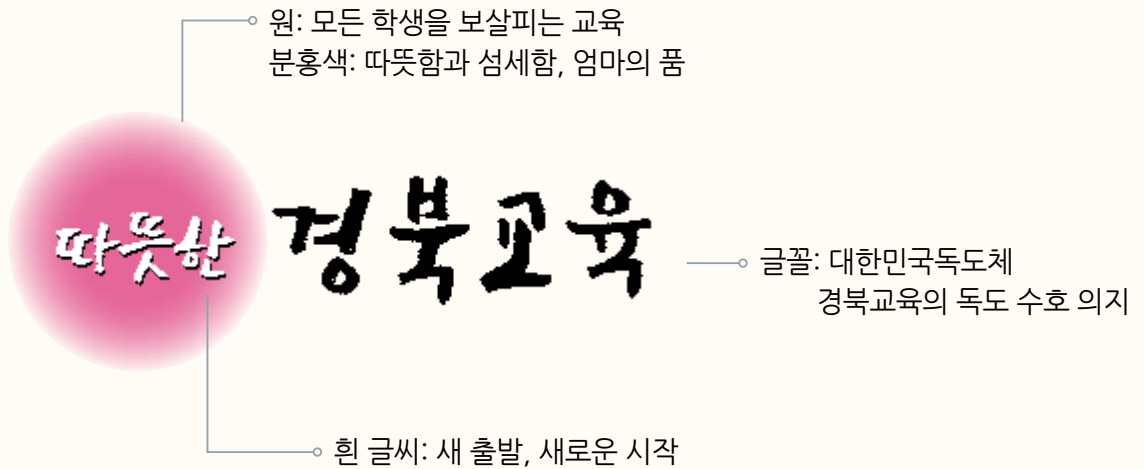


부계초등학교

경북교육이 대한민국 교육의 “표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경북교육의 방향/약속	04
칼럼 - 시(詩)울림이 있는 따뜻한 학교를 꿈꾸며	06
특집 - 선생님을 아이들 곁으로	07
이슈&이슈	08
지원하는 경북교육	10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공공도서관	12
삶의 힘을 키우는 교육현장	14
신나는 교실	16
소통하는 학교	18
함께 여는 미래	20
맛쿨멋쿨-학교 이야기/웹툰	22
메이커 교육	24
학부모 리포트	25
교육위원회/경북교육의 동반자	26
경북교육을 빛낸 별	28
학생 리포트	29
독도 사랑	30
선생님 시단	31

경북교육의 슬로건



경북교육의 비전

삶의 힘을 키우는 따뜻한 경북교육

경북교육의 지표

신나는
교실

소통하는
학교

함께 여는
미래

4대 정책 방향



경북교육의 약속

- 하나 교육비 부담을 확실히 줄이겠습니다.
- 둘 미래를 대비하는 교육을 제대로 하겠습니다.
- 셋 모든 아이들이 꿈을 이룰 수 있는 교육을 하겠습니다.
- 넷 소외되는 지역과 학생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다섯 소통하고 존중하는 학교 문화를 만들겠습니다.
- 여섯 학교업무를 정상화 하겠습니다.

시(詩)울림이 있는 따뜻한 학교를 꿈꾸며

글

약목초등학교 보건교사 한지영

어느새 약목 뜰에 가을이 가득 내렸습니다. 보건실을 찾은 아이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마음이 힘든 아이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면 아이들 손을 잡고 교문입구에 있는 ‘행복 꿈터’로 가서 함께 읽어보는 시가 있습니다. 누구나 한번쯤은 마음을 주었을 나태주님의 ‘풀꽃’입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지난 4월, 교문 입구에 있는 낡은 강당 벽이 예쁜 벽화로 새롭게 단장해 행복 꿈터로 바뀌었습니다. 등·하굣길 학생들의 마음을 환하게 밝혀주고 싶어 ‘행복’을 주제로 교사와 학생들이 함께 벽화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 세 편의 시를 실었습니다. 그 중 한 편이 나태주님의 ‘풀꽃’입니다. 모든 교직원이 학교에서 만나는 한 명 한 명의 아이들을 자식처럼 소중히 여기며 자세히 보고 오래보며 사랑을 주기 위해 노력하자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그리고 두 편은 본교 마음건강 시 동아리부원들이 직접 지은 시들입니다. 학생들의 투표를 거쳐 4학년 이지윤의 ‘하늘’과 3학년 최수아의 ‘웃긴 숙제’를 선정해 실었습니다. 가끔씩 그 시 앞에 서서 소리 내어 읽고 있는 아이들을 만나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며칠 전, 경북교육청이 1만동아리 활성화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10월 우수동아리 발표 공문이 도착했습니다. 그 중 우리 학교 ‘마음건강 시 동아리’가 선정되어 모든 학교 식구들에게 올 가을 최고의 선물이 되었습니다. 시 동아리는 3~4학년 12명의 학생들로 구성되어 마음건강 증진을 위해 다양한 시를 쓰고 있습니다. 동아리부원들은 지도교사의 헌신적인 가르침

으로 실력이 쑥쑥 늘어 어느새 두 권의 시집을 만들었습니다. 1학기에 시집 ‘학교 탈출’을 출판했고, 11월 23일엔 ‘세상에 없는 시는 없다’란 제목의 시집출판 기념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생활 속 시어들로 쉽게 쓴 학생들의 시는 많은 이들에게 공감을 주며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2018년 경북교육의 비전이 ‘삶의 힘을 키우는 따뜻한 경북교육’입니다. 모든 아이들이 따뜻한 인성을 바탕으로 자신의 미래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결과보다는 과정을, 다그침보다는 기다림을 지향하는 교육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경북교육이 실현해 나갈 여러 가지 교육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그 중 제 마음을 끌어간 분야가 감성을 키우는 학교예술교육 중 ‘시 울림이 있는 학교’입니다. 교육과정과 연계한 다양한 방법으로 시 읽기, 나의 애송시 포토폴리오 만들기, 1인 1학기 1편 시 암송하기, 시 낭송 콘서트 개최 등 새로운 방법으로 펼쳐갈 시 울림 학교를 상상하니 가슴이 뭉클해져 옵니다.

임종식 교육감님께서 교육국장님 시절에 연수회에 오시면 한 편의 시로 인사말을 하시거나 마무리를 하시며 따뜻한 울림을 전하곤 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경북의 아이들을 위해 따뜻한 교육혁명의 한 방법으로 시 울림이 있는 학교를 추진하심에 힘찬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먼 훗날, 우리 아이들이 학창 시절을 추억할 때 마음에 담아 둔 한 편의 시를 외며 ‘그 시절이 참 행복했었다’로 기억될 수 있도록 힘껏 응원하겠습니다.

따뜻한 경북교육! 화이팅!



선생님을 아이들 곁으로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감 임종식)은 지난 7월부터 학교업무정상화와 교원 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업무 개선 경감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처음에는 도교육청부터 시작했지만 9월부터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까지 확대해 11월 12일 현재 252건의 추진과제를 확정했다.

252건 중 행정제도업무방식 등 업무 개선사항이 161건이고, 업무폐지촉소통합 등 업무 경감사항은 91건이다. 임종식 교육감 취임 후 핵심 공약사항인 교원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 업무 개선경감시스템과 사업총량제 2가지 핵심정책을 사용해 불필요하거나 관행적인 업무를 줄여 학교업무정상화와 교원 행정업무 경감을 추진해 왔다. 앞서 도교육청은 9월에 사업총량제를 통해 309건의 사업을 폐지·이관했다.

이런 노력의 결과 도교육청은 올해 9월에 실시한 교원 행정업무 경감 자체 만족도 조사에서 주목할 만

한 성과를 거두었다. 만족도 점수가 전년 대비 3.19점이 상승해 81.15점을 달성했다. 이 점수는 2011년 최초 조사 이래 최대 점수 상승과 최고 점수이다. 이 조사가 표집조사가 아닌 도내 전 교원 22,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라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한편 업무 개선·경감시스템과 사업총량제 정책의 후속조치로 폐지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심사와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해 예산에 편성할 수 없도록 하며, 어떤 문서 형태로도 생산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올해 12월부터는 이행상태에 대한 중간점검을 실시하고, 위의 2개의 핵심정책을 연동해 내년 말까지 통합관리 카드로 관리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학교업무정상화 조기 정착과 기반 조성을 위한 선도교육지원청과 선도학교를 운영하고, 현재 임시조직으로 구성된 학교업무정상화기획팀이 상설조직이 되면 학교업무정상화와 교원 행정업무 경감 정책이 한층 큰 탄력을 받아 일선학교에도 업무 개선·경감의 큰 변화가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단위학교 학교업무정상화 추진】

영역	추진 내용
1. 교육활동 중심 학교조직 재구조화	• 교육활동 중심 학교문화 조성 • 교육과정 중심 학교조직 개편 • 학교장의 책무성 강화
2. 교무행정지원팀 구성 및 운영 강화	• 학교 규모와 급을 고려한 『교무행정지원팀』 구성·운영 • 팀장(교감) 중심 책임 운영 • 교무행정지원팀 참여 교사 수업 시수 경감 및 지원 대책 마련
3. 담임교사 행정업무 최소화	• 학생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 • 불필요한 업무 과감한 폐지 • 전시성 학교행사 폐지 및 행사 간소화
4. 각종 업무처리 절차 간소화	• 『학교교육계획서』에 수립된 계획은 별도 기안 생략 • 학교교육계획서에 포함되지 않은 교내 행사 및 대회 지양 • 내부결재 및 협의록 간소화 • 학교별 수업연구 절차 간소화 • ‘각종 주간’ 운영 방법 개선
5. 각종 위원회 및 장부 정비	• 각종 위원회 유사 위원회로 통합 운영 • 불필요한 장부 정비

미래 경북교육 초석 마련

2019~2022 교육발전계획 최종 보고회



7월 9일(월) 민선 4기 교육감의 새로운 경북교육지표와 정책방향을 설정해 미래인재육성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경북교육발전기획단' 출범식을 가졌다.

기획단(단장 장규열)은 공·사립학교 교직원, 물론 학계, 교육전문가, 학부모단체, 언론인 등 경북교육에 관심과 애정을 가진 각계 각층의 인사 38명으로 구성되었다.

출범식 이후 2019~2022 경북교육발전계획서 1차

보고회, 기획단 워크숍, 경북교육발전계획서 1차 부서 보고회, 교육비전, 교육지표 현장 의견 수렴, 학교업무 정상화 추진을 위한 담당자 회의, 교육지원청, 학교 등 현장의견을 수렴하여 10월 1일(월) 화백관에서 경북교육발전계획 최종 보고회를 가졌다.

2019~2022 경북교육발전계획은 300만 경북도민과 경북교육가족과의 소중한 약속을 담은 만큼 실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소통과 공감의 함께하는 주요 업무 보고회



경북교육청은 9월 27일(목) 구미교육지원청을 시작으로 11월 5일(월) 경주(울릉)교육지원청을 끝으로 23개 교육지원청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주요 업무 보고회’를 가졌다.

지금까지 실시하던 일방적인 보고 형태에서 벗어나 지역의 현안 사항이나 특색사업, 학교 현장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 개선 및 경감 사례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함께 좋은 방안을 찾아내는 과정의 하나로, 학교관리자, 학부모 대표,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장, 유관기관

의 다양한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하여 찾아가는 주요 업무 보고회 방식으로 바꾸었다.

모든 지역교육청이 소통과 공감이 함께하는 토크콘서트로 바꾸어 권위적인 일방향 보고회에서 벗어나 지역 참석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대화의 시간’에 더욱 초점을 두었다.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며 끝까지 함께하는 상생, 동행과도 일맥상통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을 받았다.



경북교육청, 초·중학생 전체 무상급식 확대·시행

고등학생 2020년부터 확대, 2022년까지 전면 시행 예정



임종식 경북교육감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경상북도 교육행정협의회를 가지고 2019년도부터 모든 초·중학생(특수 포함)들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현재까지 경상북도교육청은 읍·면 지역 초·중학교와 일부 동 지역 중학교까지만 무상급식을 실시했다.

협의회 결과, 경북 도내 모든 초·중학생(특수 포함)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재원은 교육청과 지자체가 부담(교육청 55%, 지자체 45%)하여 부담한다. 고등학생에 대한 무상급식 실시는 교육청과 지자체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2020년에 고 1학생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2년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할 계획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앞으로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하여

우리 아이들이 더 이상 교육복지 정책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교육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이와 별도로, 고등학생의 경우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하여 저소득층 자녀 지원 기준을 중위소득 56%에서 60%로 확대하고, 다자녀가정(3자녀 이상)에 해당하는 재학생 모두에게 급식비를 지원하기로 했으며, 초·중·고·특수학교에 지원되는 우수식재료 구입비 지원 대상을 유치원까지 확대함과 동시에 지원 단가를 인상하는 등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하고,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교육청이 전액 부담한다고 했다.

경북교육청, 전국기능경기대회 종합 1위

22개 특성화고 선수 121명 참가
금 6·은 16·동 10개 메달 수확

지난 10월 5일(금)부터 10월 12일(금)까지 8일간 전라남도(여수, 광양, 순천, 목포, 나주)에서 열린 제53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경상북도선수단은 금메달 6개, 은메달 16개, 동메달 10개, 우수상 18개 및 장려상 30개를 비롯한 총 80개의 메달을 획득해 전국 17개 시도 중 종합 1위를 달성함으로써 경북직업교육의 우수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53년 만에 수도권(서울·경기)의 장벽을 극복하고 경북 숙련 기능인들이 첫 우승의 쾌거를 이루게 되었다. 경북교육청은 이번 전국기능경기대회 준비를 위해 해당 직종별 지도교사 및 출전선수와 집중적인 현장 컨설팅을 통한 체계적인 대회 준비와 적극적인 예산 지원으로 종합 우승의 꿈을 이룰 수 있었다.

특성화고등학교 22개교 121명의 학생이 40직종에 참가하였으며, 자동차정비 직종에 출전한 박성규(신라



공업고등학교), 자동차차체수리 직종에 출전한 최자현(신라공업고등학교), IT네트워크시스템 직종에 출전한 최선용(금오공업고등학교), 농기계정비 직종에 출전한 서경진(한국생명과학고등학교), 그래픽디자인 직종에 출전한 박정봉(경북과학기술고등학교), 건축설계/CAD 직종에 출전한 김유성(상주공업고등학교) 이상 총 6명이 금메달을 획득하였고, 산업용로봇 직종에 출전한 신태환(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 등 10명이 은메달을, 제품디자인 직종에 출전한 우채영(포항여자전자고등학교) 등 6명이 동메달을, 요리 직종에 출전한 박동현(경북생활과학고등학교) 등 14명이 우수상을, 목공예 직종에 출전한 문해찬(고령고등학교) 등 22명이 장려상을 수상하여 경북 특성화고등학교의 명예를 높였다.

이번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직종별 상위득점자(팀) 2명(팀)은 2017년 전국기능경기대회 상위득점자(팀) 2명과 함께 선발경기를 거쳐 최우수

선수로 선정된 1명에게 2019년도 제45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러시아 카잔) 출전 자격이 부여된다.

경북교육청은 선도기업 450개를 선정해 기능인력이 취업할 선택의 기회를 다양화했다. 글로벌 현장실습도 확대해 독일, 네덜란드, 호주 등 해외 7개국 13개 글로벌 사업단에 174명(해외취업을 70%)을 파견하고 있다.





생생한 문화예술의 향기가 학교로 찾아갑니다

경상북도교육청문화원(원장 추미애)은 9월 7일(금) 청도 이서고에서 이서중학교와 연합한 가운데 학생 및 학부모 450여 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문화예술 학교」 행사를 열었다. 이 행사는 농산어촌 지역 학교를 직접 찾아가 문화예술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도시와 농산어촌 지역의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워주는 보람 있는 행사이다.



한국을 방문한 고려인 학생들

화랑교육원(원장 박두진)은 7월 9일(월)부터 1박 2일 동안 포항 유강중학교 학생 31명과 고려인 학생 31명을 대상으로 교류행사를 실시했다. 이 행사는 연해주 등지에 거주하는 고려인 4~5세대 청소년들과 한국 청소년들의 교류를 통해 조국과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남북통일을 기원하는 세대로 육성하고자 마련되었다.



친구들과 함께해서 행복해!

경상북도교육청해양수련원(원장 최명대)은 7월 23일(월)부터 31일(화)까지 학생 300여 명을 대상으로 총 3기에 걸쳐 「2018 청소년 행복여름캠프」를 개최하였다. 이 행사는 해양 체험활동, 바다 사랑 골든벨 등의 프로그램으로 꾸며져 청소년들이 바다와 함께 무한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다.

3D 프린터와 아두이노로 만드는 드론

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석)은 8월 6일(월)부터 10일(금)까지 5일간 포항발명교육센터에서 발명교사 직무연수를 실시하였다. 이번 연수는 관내 초·중·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 핵심기술인 3D 프린팅 및 아두이노에 대한 이론 및 실습을 통해 직접 드론을 제작해보는 주제중심 프로젝트 형태로 진행되었다.



중학생과 대학생, 환상의 짝궁!

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노승하)은 9월 8일(토) 고령 대가야체험캠핑장에서 중학생(멘티) 60명, 금오공대생(멘토) 20명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환상의 짝궁 학습 멘토링」을 실시하였다. 멘티-멘토 결연을 통해 소그룹 형태의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는 이 프로그램은 중학생들의 학력 향상, 학교생활 적응 등에 기여하고 있다.



시(時)와 음악(音樂)이 어우러진 한여름밤의 時 낭송회

영주선비도서관(관장 김순연)은 8월 24일(금) '영주의 시를 낭송하다'란 주제로 지역의 시인들을 모시고 그 분들의 시를 시낭송회 동아리 회원이 직접 낭송하는 뜻 깊은 자리를 마련하여 음악공연과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의 장이 되었다.





삶의 힘을 키우는 교육현장

(수) ~ 09.07.(금) 3일간
학교, 천안상업고등학교





각남초등학교



‘밭 대신 드론으로 낚시’ 드론 축구팀 창단

각남초등학교(교장 최정하)는 전국학교 단위로는 처음으로 드론축구팀을 창단하였다. ‘남들과 다른 생각을 키우자’는 창의성 교육을 구현하기 위해서 시작한 드론 교육은 학교에 대한 자부심과 진로 선택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물야초등학교

Green consumer 키움 프로젝트, 멸종 위기 동물을 보호해요

물야초등학교(교장 박천국)는 Green Consumer 키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소백산생태탐방원 연계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학생들은 교육 활동에 참여하여 동물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과 멸종 위기 동물들의 소중함을 배우고 있다.



동산여자중학교



동산여중, 창의융합 페스티벌 도전 골든벨 실시

동산여자중학교(교장 박재실)는 9월 13일(목)부터 전교생이 창의융합 페스티벌 수학·과학·정보 도전! 골든벨을 실시하였다. 그동안 갈고 닦은 수학, 과학, 정보와 관련한 상식 전반에 대해 퀴즈를 푸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전교생이 어우러지는 축제의 모습이었다.

안강중학교



안강중, 아름다운 우리들의 성 캠프 개최

안강중학교(교장 강성호)에서는 9월 13일(목) 경주학생상담자원봉사자연합회에서 주관하는 아름다운 우리들의 성캠프를 1학년 전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성캠프에 참여한 1학년 학생은 “여러 가지 성에 관련한 모든 것을 체험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생명의 소중함과 각종 미디어를 통한 불법 동영상에 우리들에게 미치는 좋지 못한 영향과 대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너무도 좋았다”며 소감을 밝혔다.

구미고교, '창의융합 과학 탐구 캠프' 운영으로 미래 과학인재 육성

구미고등학교(교장 마해수)는 7월 30일(월)부터 8월 3일(금)까지 1, 2학년 과학중점과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창의융합 과학 탐구 캠프'를 운영하였다. 특히 코딩드론 만들기, 앱 만들기 등 학생들이 직접 과학 기술을 경험할 수 있는 체험형 과학 콘텐츠를 기반으로 캠프를 구성하여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었다.

구미고등학교



명인정보고등학교



즐거운 한가위 민속놀이!

명인정보고등학교(교장 남덕우)는 9월 21일(금) 다가올 추석에 맞아 한복을 입고 등교하여 한가위 계기교육 및 민속놀이 대회를 개최하였다. 추석의 유래와 풍속에 대한 설명, 한가위 노래를 다 같이 부르는 등 각 반 대표들이 모여 윷놀이, 씨름, 팔씨름을 펼치는 시간을 가졌다.

연일형산초등학교



국제교류로 대한민국의 문화를 세계에 알려요!

연일형산초등학교(교장 김영식)는 일본 이즈모시 시마네현 나가하마 소학교를 초청하여 교류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경상북도교육청 '상호방문형 국제교류 사업' 일환으로 국제 이해 교육과 글로벌 리더 양성을 목적으로 마련하였다. 일본 학생들은 홈스테이를 통해 한국 가족문화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학교에서 직접 키운 토끼·달걀 팔며 시장체험

산북초등학교(교장 최정애) 창구분교 학생들이 전통시장인 신흥시장에서 좌판을 벌였다. 학생들이 동식물들을 직접 재배하고 기르면서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과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을 키우고 시장 경제 원리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산북초등학교



진평초등학교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구미이야기

진평초등학교(교장 김상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구미이야기'라는 주제로 소통하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교육과정을 재구성해 구미 지역의 역사적 인물,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수업 속으로 가지고 와서 할아버지,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으로 이뤄졌다.

탐리여자중학교



탐리여중, 위대한 어머니와의 만남

탐리여자중학교(교장 이택준)는 9월 7일(금) 전교생들이 경북 영양군 석보면 두들마을 '장계향 문화체험교육원'에 다녀왔다. 최초의 한글조리서 “음식디미방”의 저자인 장계향 선생의 정신과 문화를 배울 수 있는 장계향 문화체험교육원을 방문하여 그분의 사상과 음식 조리법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영덕여고 동아리뱅크시, 우리 손으로 직접 아름다운 마을 만들어요!

영덕여자고등학교(교장 최경식) 동아리 뱅크시는 영덕군 소재 경로당 담장에 직접 벽화를 그려 행복하고 아름다운 마을을 만드는 데 기여했다. 동아리 학생 9명과 김성배 지도교사는 벽화를 그리는 과정에서 마을의 어르신들과 깊이 소통하는 한편 협력을 통해 사제 간의 정을 돈독히 했다.

영덕여자고등학교



안동고등학교



국제교류로 대한민국의 문화를 세계에 알려요!

8월 13일(월)부터 8월 17일(금)까지 안동고등학교(교장 김길호)와 안동여자고등학교(교장 임동환)는 한국을 방문한 베트남 타이응우옌 영재고와 공동으로 상호방문 국제교류를 진행하였다. 베트남 영재고 학생 28명은 안동고 및 안동여고 학생들과 함께 홈스테이를 하며 학교수업을 참관하는 한편, 태권도와 탈춤 등 한국 문화를 체험하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꿈터유치원



부모님과 함께 동화 속 나라로~

꿈터유치원(원장 권춘미)은 유아, 교사, 학부모가 함께하는 '즐겁고 신나는 Book(북) 페스티벌'을 실시하였다. 동화 속 탐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림 책과 관련한 신기한 체험부스를 학급별로 마련하여 놀이체험으로 진행되었다.

아이는 영어, 미군은 한글을 배워요

장기초등학교(교장 김은자)는 '미해병대와 함께하는 잉글리시 페스티벌'을 운영해 한·미 문화교류를 직접 체험하는 행사를 가졌다. 미해병 8명이 자원 봉사자로 참여해 퀴즈 진행 및 동화책 읽기를 지원했으며, 미해병대 소속 민사관이 통역 및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였다.

장기초등학교



송원초등학교



효와 사랑을 전하는 요양원 위문공연

송원초등학교(교장 우옥연)는 백송 한마음 요양원에서 '효와 사랑을 전하는 요양원 위문공연'을 가졌다. 위문 공연 활동을 통해 웃어른을 공경하고 이웃에 대한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고 자신의 끼와 재능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진평중학교



진평중,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송편 빚기

진평중학교(교장 정시상)는 ‘꿈찾기 재능봉사 동아리’ 회원 26명이 9월 15일(토) 한가위를 맞아 구미시 강동노인복지타운을 방문하여 70여 명의 어르신들과 함께 추억을 되살리는 예쁜 송편 빚기와 장기자랑으로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

우곡중, 학부모와 함께하는 자유학기 진로체험 실시

우곡중학교(교장 정천상)는 9월 4일(화) 학부모와 함께 하는 자유학기 진로체험을 다녀왔다. 학부모들은 ‘자녀가 함께 하는 진로체험활동’을 통해 학교교육활동과 자녀에 대해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우곡중학교



북삼고등학교



북삼고, 일본 홋카이도 기요타 고등학교에 따뜻한 사랑을 전하다

북삼고등학교(교장 남현석)는 지진 피해를 입은 일본 기요타고등학교에 성금을 모아 전달함으로써 온정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기요타고등학교는 9월 6일(목) 홋카이도에서 발생한 6.7 규모의 지진 지역에 속한 학교로 북삼고와 상호우호교류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지진 소식을 접한 북삼고 학생들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성금 모으기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기요타고등학교에 총 1,650,000 원의 모금액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사동중학교 음악이 흐르는 등갯길~♪ 팬플룻 연주로 함박 웃음 가득

사동중학교(교장 이능기)는 매주 1회 이상 학생들의 즐거운 등교를 위해 등갯길 팬플룻 버스킹 연주를 실시하고 있다.

2017년부터 실시한 사동중학교 교장선생님의 등갯길 팬플룻 버스킹은 음악교과서에 나오는 '사랑으로', '홀로 아이랑'을 비롯해 '바람이 부는곳으로', '일어나' 등 밝은 노래를 연주하고 있으며 매주 곡명을 조금씩 바꾸어 가며 학생들의 바쁜 아침 등갯길에 잔잔한 웃음을 만들어 주고 있다.

학생들은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고 학부모들은 학교를 더욱 믿고 신뢰함으로써 학교에는 연중 행복한 웃음이 넘치고 있다.



미래 정구 국가대표를 꿈꾸는 점촌중앙초등학교 꿈나무를 만나다

점촌중앙초등학교(교장 강점석)는 정구부 학생들은 올해 전국소년체육대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기 대회에서 여자초등부 단체전 우승을 거둔만큼 실력이 대단하다.

13명으로 구성된 정구부 학생들은 정규수업에도 열심히 참여하고 있으며,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에는 강당에서 연습으로 기량을 키우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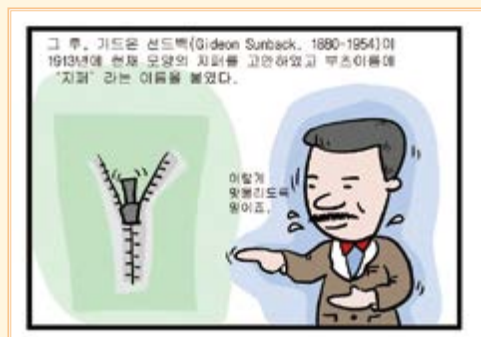
또한 수업이 끝나면 하루도 빠짐없이 학교 앞 연습장에서 코치선생님의 지도 아래 준비운동을 시작으로 난타연습, 스트로크 연습 등 민첩성과 기초체력 강화 훈련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자신의 꿈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노력하는 점촌중앙초등학교 정구부 학생들의 모습에 큰 박수를 보내본다.



교육 만화(웹툰)
“너의 아이디어를 믿어라”

교육 만화(도술세 웹툰)로 배우는 발명 이야기 제62화



‘지퍼’의 발명

미국 시카고의 휘트콤 저드슨(Whitcom L Judson, 1836-1909)은 그의 몸이 뚱뚱해서 아침마다 허리를 숙여 군화 끈 매는 것을 매우 불편해 하였다.

군화 끈 매는 것이 불편했던 그는 금속갈고리들이 다른 쪽의 금속 눈과 맞물리도록 연구했고, 그 후 기드온 선드백(Gideon Sundack, 1880-1954)이 현재 모양의 지퍼를 고안하여 부츠이름에 ‘지퍼’라는 이름을 붙였다.

교육 만화(도술세 웹툰)로 배우는 발명 이야기 제37화



‘김치냉장고’의 발명

현대인의 필수품 김치냉장고는 우리 선조들이 예부터 사용한 장독대 ‘옹기’에서 영감을 받은 것이다.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는 자연환경과 풍토에 맞게 배부른 모양으로 옹기를 만들었는데, 이는 바람이 자연스럽게 통과 태양열과 복사열이 형성된다. 추운 겨울에 이 옹기에 담고 김치를 땅 속에 묻을 때 평균 기온이 영하 1°C가 유지되고 이 조건이 김치를 보관하는데 최적의 환경이 된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김치냉장고는 이 ‘옹기’의 원리를 고안하여 만든 것이다.

메이커 교육, 미래 사회를 위한 사고력과 창의력을 길러요.

김천교육지원청 장학사 박경희



알파고의 충격

2016년 있었던 알파고와 이세돌 9단의 바둑 경기는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준 사건이었다. '딥러닝'이라는 학습기술을 가진 새로운 인공지능이 바둑이라는 인간만의 영역을 정복해버린 것이다. 이 사건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의 흐름을 많은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경험하였고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새로운 교육의 필요성을 공감하게 되었다.

변화하는 사회, 변화하는 교육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3D 프린터, 드론 등 다양한 기술과 함께 현대 사회는 과거 사회와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사회로 변화하고 있다. 특히 3D 프린터는 시제품을 만드는 속도와 비용을 크게 절감하며 아이디어를 가진 모든 사람에게 메이커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메이커들이여, 아이디어를 펼쳐라!

삶을 개선할 수 있는 물건, 시장성을 가진 물건 등 내가 가진 아이디어로 제품을 생산하는 사람을 메이커라고 한다면, 메이커교육은 아이디어를 펼칠 수 있는 인적, 물적 지원을 통해 이러한 생산을 장려하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메이커교육은 특히 아두이노와 3D 프린터,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이해를 통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회로에 대한 오픈소스를 제공하는 마이크로컨트롤러 보드인 아두이노는 외부세계의 자극을 받아들이는 다양한 센서와 이에 반응하는 다양한 출력 모듈을 통해 다양한 아이디어 제품을 만들 수 있는 하드웨어이다. 아두이노는 메이커교육용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으며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를 3D 프린터와 함께 활용하면 원하는 모양의 아두이노 기반 로봇을 만들 수 있으며 스크래치, 엔트리 등의 프로그래밍 언어를 통해 이 로봇을 원하는 대로 통제할 수 있다.



꼭 아두이노로만 메이커 교육을 해야 하나요?

제품의 생산이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꼭 완성된 제품을 만드는 것만을 메이커 교육이라고 할 수는 없다. 때로는 제품의 가능성을 가능해보는 것만으로도 창의력과 문제해결력을 신장하는 교육 방법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제품의 설계도를 그려보는 활동, 제품의 작동 알고리즘을 그려보는 활동, 제품 없이 프로그래밍을 먼저 해보는 활동 등의 교육도 메이커 교육의 일환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메이커 교육은 때로는 종이 한 장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고, 엔트리, 스크래치 등의 교육용 프로그래밍 언어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며, 레고 EV3, 비트브릭 등 다양한 SW교육용 교구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

교과의 경계를 허물어라!

메이커 교육은 내가 가진 아이디어를 펼쳐 원하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 수학, 과학, 컴퓨팅 등과 관련된 다양한 지식을 통합적으로 활용하는 교육이다. 따라서 기존에 이루어졌던 교과 중심 학습보다, 교과의 경계를 넘나드는 통합적 지식의 활용이 더욱 중요하다. 특히 제작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학습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제해결력과 창의력을 자연스럽게 신장하는 교육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아이디어를 공유하자!

메이커교육은 삶을 개선시킬 목적으로 다양한 물건을 생산하는 것을 장려하며 이러한 물건을 보다 완전하게 만들기 위해 아이디어의 공유는 필수적이다. 학생들은 완전한 제품의 생산이라는 하나의 목적을 위해 협동하고 아이디어를 공유함으로써 문제 해결 과정에 몰입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협력적 문제해결의 과정속에서 자연스럽게 협동, 배려, 소통 등을 학습하는 인성교육이 이루어지게 된다.

상상하고 공유하는 경북메이커교육

메이커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한 경북메이커교육관 건립과 발명교육 센터 기반 메이커교육 공간 구축, 특성화고 창업 메이커교육 공간 운영, 지역과 연계한 메이커교육 협력 네트워크 구축으로 교원 지도 역량 강화는 물론 온라인 콘텐츠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메이커교육 문화 확산을 위한 정보 축적 및 공유 시스템 구축과 학생, 교사, 학부모와 함께하는 메이커 캠프, 축제를 개최하여 융합적 사고력 향상에 힘쓸 것이다.

배려·나눔·봉사를 실천하는
선영여고 자치 학생동아리

‘동행’을 찾아서...



더불어 사는 우리 사회가 가진 공동체의 따뜻함이 불러오는 놀라운 관심과 사랑, 배려, 나눔을 실천하는 선영여고 자치동아리 ‘동행’은 2014년 3월 창단되었다.

지금까지 학교 밖 자치동아리 활동을 통해 이웃 사랑, 이웃 섬김을 실천하는 ‘동행’은 학교 밖 자치동아리로 영주관내 ‘상망동 주민센터’와 협약을 맺는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주변을 살피는 일에 앞장서며 소외된 계층과 취약계

층의 지체장애 학생과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 학습을 도와주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 5년째 취약계층 학습지도 봉사와 기부 등이 이어져 오고 있다.

갈수록 각박해져 가는 요즘시대에 관심을 갖고 작은 도움을 나누고자 이웃을 살피고 챙기는 일에 앞장서겠다는 학생들을 보니 마음 한편이 흐뭇해지며 벅차오르는 감정에 고개가 숙여진다.

- 학부모 리porter 장세희, 금년옥 -



경북도의회 제301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상임위 활동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곽경호)는 7월 16일(월)부터 17일(화)까지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교육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곽경호 위원장은 민선 4기 교육감 출범에 맞춰 공약 과제의 내실있는 실현을 위하여 효과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경상북도교육청에 당부했다.

미세먼지 및 공기산업박람회 참석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곽경호)는 최근 미세먼지가 학부모들의 큰 걱정거리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9월 19일(수) '제1회 에어페어-미세먼지 및 공기산업박람회'에 참석했다. 위원들은 학교, 실내체육관 등 공공시설의 공기질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자들과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제11대 경상북도 교육위원회

위원장

곽경호(칠곡1)

부위원장

정세현(구미1)

위 원

박태춘(비례) 고우현(문경2) 이재도(포항7) 김봉교(구미6) 조현일(경산3) 박용선(포항4) 최병준(경주3)



경상북도 학교운영위원장연합회, 정기 협의회 개최

경상북도 학교운영위원장연합회(회장 최희노)는 7월 26일(목) 예천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임종식 경상북도교육감을 비롯한 도내 23개 시·군 지역협의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운영위원회 발전 방안과 충북지역 학교운영위원장 연합회와의 MOU 체결 방안에 대한 정기 협의회를 개최했다. 정기 협의회에 앞서 근면성실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관내 초·중학교 우수학생 3명에 대한 장학금 전달식이 있었다.

경북녹색어머니연합회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

경상북도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10월 11일(목) 예천남부초등학교 정문 및 주변 횡단보도에서 '스쿨존 어린이 등굣길 교통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일환으로 캠페인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도내 23개 시·군 경북녹색어머니연합회 주관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준수, 횡단보도 안전하게 건너기, 스마트폰 사용 안하기, 학교 주변 교통시설 점검 등을 슬로건으로 어린이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실시하였다.



경상북도학생상담자원봉사자 연합회 전문과정 연수회

경상북도학생상담자원봉사자연합회는 9월 20일(금)부터 1박 2일 구미 금오산호텔에서 23개 지역 상담자원봉사자 전문교육 대상자 80명을 대상으로 외부 강사를 초청하여 가족관계, 부모자녀관계, 부부관계 등 사례별 이해와 가계도 이해 및 작성, 치료에 대해 전문과정 연수회를 개최하였다.

★ 녹전초등학교 교사 권오일 ★



제40회 전국학생과학발명품 경진대회 학생작품지도논문 연구대회

녹전초등학교 교사 권오일(왼쪽 두 번째)은 과학 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국립중앙과학관이 주관한 제40회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에서 학생작품지도논문연구대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전국 2등급을 수상하였으며, 작년 같은 대회에서 대통령상을 받은 작품을 지도한 경력의 소유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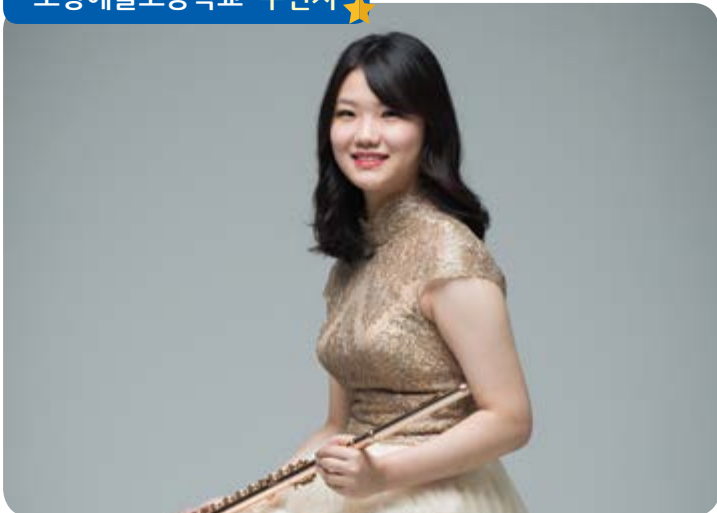
★ 경북과학고등학교 최원찬 ★



경북과학고 최원찬 군,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대통령상 쾌거!

경북과학고등학교 최원찬(3학년) 학생은 제40회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비 오는 날 신발 밑창에서 물이 튀어 오르는 현상을 유체역학적으로 분석하여, '물 튼 방지 밑창'의 최적화된 구조를 제시했다.

★ 포항예술고등학교 주민지 ★



전국대회에 연이은 입상

포항예술고등학교 주민지(2학년) 학생은 '제27회 성정공쿠르' 플루트 부분 금상, '전국 관악실기경연대회' 2위, '제1회 부산대 음악콩쿨' 금상 등 유명 전국대회 연이은 입상으로 기량을 주목받고 있다.

“우리 유산 담아낸 영상 제작 뿌듯”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2018 학생 영상 제작캠프’에 참석한 학생들이 국학진흥원 관계자를 대상으로 영상촬영을 하고 있다.



학생 리포트

세계기록유산 영상 제작캠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2018 학생 영상 제작캠프’가 경상북도교육청 주최로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열렸다.

이번 캠프는 10월4일~10월6일 신청자 위주로 1차 진행됐고 10월11일~10월13일 총 2회차로 구성됐으며 각각 경북지역 중, 고등학생 4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캠프가 진행된 한국국학진흥원은 경북 안동시 도산면 퇴계로에 위치해 있다.

이곳에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유교 책판과 국제보상운동 기록물 등이 소장돼 있다. 또 유네스코 아태기록유산에 등재된 한국의 편액, 만인소 등도 보관하고 있는 곳이다.

캠프 첫째 날은 강의 위주로 진행됐다. 참여 학생들은 안동 MBC 강병규 프로듀서의 강의를 들으며 방송 콘텐츠 제작 기본과 실무를 익혔다.

강 프로듀서는 강의에서 영상 콘텐츠의 시대·역사별 변화에 대해 설명했다. 또 방송과 관련된 직종과 프로그램 기획부터 촬영, 편집, 후반작업까지 방송과 관련된 이야기를 학생들에게 전했다.

두 번째 강의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프로그램과 한국의 세계기록유산에 대해 김기배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과학문화본부장(세계기록유산 아태지역위원회 의장)이 강의를 했다.

김 본부장은 유네스코에 대한 창설 배경과 현황을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했으며 한

국의 세계기록유산에 대한 다양한 정보도 알렸다.

전체 강의 후에는 조별로 주제를 나눠 조별 강의를 진행했다. 특히 6조 주제는 한국국학진흥원이 보유하고 있는 세계기록유산인 한국의 유교 책판, 한국의 편액, 만인소 등이었다. 한국의 유교 책판은 조선시대에 서

방송용 콘텐츠 제작 교육 편액·만인소 등 강의 진행 학생 직접 촬영·편집까지

책을 발간하기 위해 목판에 판각한 인쇄용 책판들이다.

한국의 유교 책판을 주제로 한 조 담당 선생님들은 유교 책판의 형태와 형식, 유교 책판이 만들어진 역사적 배경, 유교 책판이 가진 세계기록유산으로서의 가치 등을 설명했다.

편액은 흔히 현판이라 부른다. 현판은 편액, 기문, 주련 등을 모두 포함하는 용어이다. 강의는 편액의 형태와 제정, 한국의 편액이 가진 기록유산적 가치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만인소는 조선시대 만여 명이 달하는 재

야 유학자들이 연명해 용에게 올린 상소를 말한다. 곧 그대로 ‘만인’이 올린 상소다.

만인소에 대한 강의에서는 만인소의 역사적 배경과 중요한 가치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첫째 날의 강의가 모두 끝나고 둘째 날 전까지 조별로 물체 날아 촬영을 하게 될 영상을 기획 및 구성하는 단계의 시간을 가졌다.

모든 게 처음인 학생, 영상 제작에 능숙한 학생들도 있었다. 조언들과 함께 의견을 내고, 부족한 부분은 작가 멘토들이 수정해주는 과정도 거쳤다.

둘째 날부터는 본격적으로 전남 기획한 대로 영상 촬영 및 편집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은 진행됐다.

각 조는 주제와 맞는 세계기록유산이 있는 곳을 방문해 학생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콘텐츠를 직접 만들어갔다.

아침부터 밤까지, 촬영부터 편집까지 힘들지만 한 데도 대부분 학생들은 열심히 캠프에 참여했다.

셋째 날인 마지막 날에는 3일 동안의 결과물인 영상을 감상하고, 전문가들이 평가하는 시간을 가졌다. 열심히 노력해 좋은 결과를 이룬 조 전문가들은 호평됐다.

시상식을 마지막으로 학생들은 웃음을 띠며 서로에게 박수를 쳐주었다.

이번 캠프는 영상 콘텐츠에 대해 폭넓은 시야를 가지는 계기가 됐다.



손에진

경북교육청학생기자단
상주 용운고 2학년

강치의 꿈

김천울곡고등학교 2학년 박성은



빛나고 아름다운 갈기
한 여름 태양만큼 이글거리는 눈빛
경이로운 대자연의 꿈속을 휘달리는
사자를 볼 수 있는 건
세레게티 초원만이 아니다.

동해 바다 푸른 물결
출렁이는 그 연안을 무리지어 쫓는
바다사자들이 있었다.

회색빛 우아한 털가죽
유유히 물결을 가르는 바다사자

어떤 날은 가지였고
어떤 날은 가제였고
어떤 날은 강치였지만

이름이 바뀌어도
사자는 그저 사자였다.
동해로 떠오르는 햇덩이를 바라보며
빛나는 무지개의 나라를 꿈꾸었다.

바다 위에도 천둥과 번개 내릴 때 있었다.
바다가 스스로 파도와 해일 불러들일 때 있었다.
용감히 마주했다.
삶을 벗지 않았다.

그러나 인간의 욕심과 문명이 더해 엮은
촉촉한 그물, 억센 밧줄을 피하지는 못했다.
심장은 파헤쳐지고 뇌는 멈추었다.

심장이 있던 자리는 화학섬유로 채워지고
죽어도 죽을 수 없고
살아도 살 수 없는
박제된 한 마리 짐승으로 남았다.

포르말린 냄새 매캐한
박물관 유리 전시장 속에서
무지개를 꿈꾸었던 아득한 기억만은 살아남아
오늘도 거친 파도를 가른다.

폐 현수막

송 명 원

황금알을 낳는 황금동 아파트
잔여분양 선착순! 바로 입주 가능

새로 지은 아파트를
광고하던 현수막이

산 중턱 공밭 고구마밭
둘레에 걸렸다.

스키장에 집을 배배얕긴
너귀리 오소리 족제비

펜션 만든다고 짝지낸
멧돼지 고라니 토끼

어제 보고 가더니
오늘 또 왔다.



송 명 원 | 봉화 소천초등학교 두음분교 교사 I

2011년 「고층 아파트」외 11편으로 제9회 푸른문학상을 수상하였다.
어린이시집 『내 입은 불량 입』(크레용하우스, 2013)을 엮었고, 동시집 『짜장면 먹
는 날』(크레용하우스, 2016)과 『보리 나가신다』(열린어린이, 2018), 『오늘은 어떤 놀
이할까?』(공저)(크레용하우스, 2018)를 펴냈다.



■ 권지민 북주여자중학교 3학년



경상북도교육청
Gyeongsangbuk-do Office of Education

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511 (갈전리)
TEL. 054-805-3000 www.gbe.kr



발 간 등 록 번 호
경북교육 2018-15